현불 논단

국내 OTT 콘텐츠 '혁신' 필요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OTT 서비스 폭발적 성장세
지상파 · 케이블TV 생존 위협

디지털 '스트리밍 기술' 바탕
2006년 아마존프라임 첫 시작
양질 콘텐츠 무제한 이용 매력

해외OTT 비해 국내업체 영세
글로벌 환경에 대한 도전 필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의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OTT(Over The Top)는 원래 셋톱박스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 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OTT 서비스 사업자다.

오랜 세월 동안 영상 시장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오던 지상파방송, 케이블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그 기세에 눌려 생존의 위협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의 시청 트렌드가 OTT로 수렴하면서 전통 미디어의 영상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 미디어는 OTT와 같은 신규 디지털 미디어와 시청자를 나누어 가지며 시장에서 공존하겠다는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미디어 생태계는 우후죽순 출현하는 신생 OTT와 같은 각종 디지털 종들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처음으로 시작한 OTT 서비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스트리밍 기술'을 배경으로 한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흐른다'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방식이다. 과거 CD나 MP3 파일을 모으던 것과는 달리, 콘텐츠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음원 서비스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스트리밍 소비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을 토대로 출현한 OTT 서비스는 영상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유통방식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며 급속히 성장해가고 있다. 해외 디지털 미디어 시장조사 업체 Digital TV Consultancy는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OTT 점유율이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OTT 시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훌루, HBO 맥스, 애플TV+, 퀴비와 같은 미국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이 중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1억 9천만 명(2020년 6월 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1억 5천만 명(2020년 1월 기준)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기타 경쟁 업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향후 OTT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OTT 서비스의 매력은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월정액에, TV수상기,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초연결 사회로서 글로벌 시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해외 OTT 업체가 이미 한국에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반면,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일부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더 많은 광고를 허용하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아날로그 미디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보다는 국내 사업자들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가 우선돼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속성상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이생엔 공양올리고 갑니다

두 달 전 인연이 된 원만행 보살님은 췌장암 말기와 백내장 · 녹내장 말기증세로 시력까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의식마저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두 달의 짧은 시간동안 보살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 보살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자한 외모와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진실된 신심과 겸손한 자세에 감동을 받았다. 따님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에서 1미터 간격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나누었다. 첫 마디가 "스님 저는 절에서 30년 공양주를 살았습니다"였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시봉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뿌듯하고 행복하다 전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보살님은 자신의 고단한 삶의 인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절을 찾아 공양주를 자청하고 절 살림을 맡게 되었다.

일이 많아 몸은 힘들지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500등이 넘는 연꽃을 혼자서 다 만들어 법당에 달면 스님들께서 "보살님은 이렇게 연꽃을 잘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다음 생엔 반드시 연화장 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덕담을 주시기도 하였다.

공양 때는 스님들의 식성에 따라 국과 찌개를 끓였다. '영양분도 없는 것을 드시고 어떻게 수행을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스님들마다의 식성과 좋아하는 요리를 눈여겨보고 기억하였다. 어떤 스님은 미역국을 좋아하시고 어떤 스님은 국보다는 찌개를 좋아하셨다. 밥도 흰밥과 찰밥을 나누어서 준비하였다. 이런 모습에 주변에서는 별스럽다고, 왜 고생을 자처하냐고 하였지만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다는 일념으로 하였다. 조금 더 마음 쓰면 스님들이 훨씬 공양을 잘 드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잘 드시는 모습만 봐도 감사했고 흐뭇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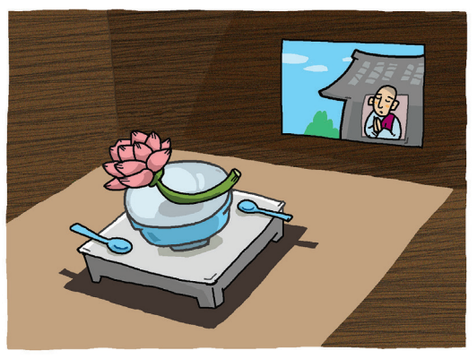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듯 한 생을 공양 올리며 살았고 이제 부처님 곁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는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전 보살님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스님 엄마가 많이 위독한데요. 눈은 안 보이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이 전화를 바꿔 드릴테니까 통화 좀 해주세요." 흐느끼는 딸의 음성이 들렸다.

"원만행 보살님"하고 부르니 "스님, 왜 이렇게 부처님한테 가는 게 힘들까요. 저를 그만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천천히 읊조리듯 말하는 보살님의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했다.

다시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보살님의 모습은 마른 나뭇잎처럼 바짝 마르고 숨은 목에 차 당신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표현하는 듯 보였다. "스님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세요?"라고 묻자 고개를 가늘게 끄떡인다. 귀 가까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 함께 입을 움직이는 모습에 목이 메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30년을 부처님 도량에서 한 생 공양올린 불자 원만행 보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정토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수해복구에 불자 힘 모으자

8월 7~8일 구례와 하동, 합천 등에는 최대 53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구례읍이 물에 잠기는 등 수해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과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서 수십년 만의 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사찰과 마을이 수해를 입었다.

그 이후 수주동안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애석하게도 폭염이 내리쬐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이 빗물 대신 구슬땀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이들은 옷을 흠뻑 적신 채 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아픔에 사찰 스님들도 나섰다. 구례 화엄사와 하동 쌍계사 등 지역 스님들은 장화와 고무장갑을 끼고 흙투성이가 된 가재도구를 씻고, 집기를 나르며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 만졌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구례읍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힘이 되도록 했다. 전국 각지의 스님들과 불자대중들이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피해복구까지는 아직 남은 일이 많다. 수해를 입은 다음에는 빠른 복구가 필수라고 한다. 토사들이 굳기 전에 물로 씻어내는 것이 굳은 다음 닦아내는 것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더욱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금을 비롯, 성금 등을 받더라도 재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조금 더 십시일반 나누는 불자들의 자비행이 필요하다.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이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살려 수해복구와 지원에 나서자.

감동 '포교 · 교육' 유튜브 기대

최근 불교 각계에서 유튜브 채널 개설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불교 유튜브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도 종단 행정과 교육, 포교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팀 '고사리 유랑단'을 구성해 예능형 포교 채널을 운영하고, 출가자 감소 극복을 위한 출가 모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종단의 다양한 종무행정과 운영방침, 행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관건은 유튜브 채널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정보전달,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가 얼마만큼 대중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느냐이다. 당장에 유튜브를 켜보면 이러한 콘텐츠들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콘텐츠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하여 초기의 기획과 달리 눈살 찌뿌려질 만큼 자극적인 콘텐츠로 변질된 유튜브 채널도 많다. 또 기업이 주도하는 채널 중에는 무의미한 단순정보만을 담고 있는 채널도 많다.

청년들에게는 즐거움과 함께 감동을,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장년들에게는 삶의 보람과 활력, 그리고 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수많은 정보성 유튜브 콘텐츠, 예능형 유튜브 콘텐츠 속에서 차별성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연구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보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불교를 알아가고, 불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야 한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유튜브 채널 운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다른 곳에서 하기에, 많은 인기가 있으니 따라서 하는 채널 운영은 의미가 없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불교가 지닌 진실한 감동을 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